

제주 바다쓰레기에서 핀 동화적 상상

-예술감성 창의놀이터 조성사례-

바다쓰기 김지환 대표







한때 예술가를 꿈꾸던 미대 오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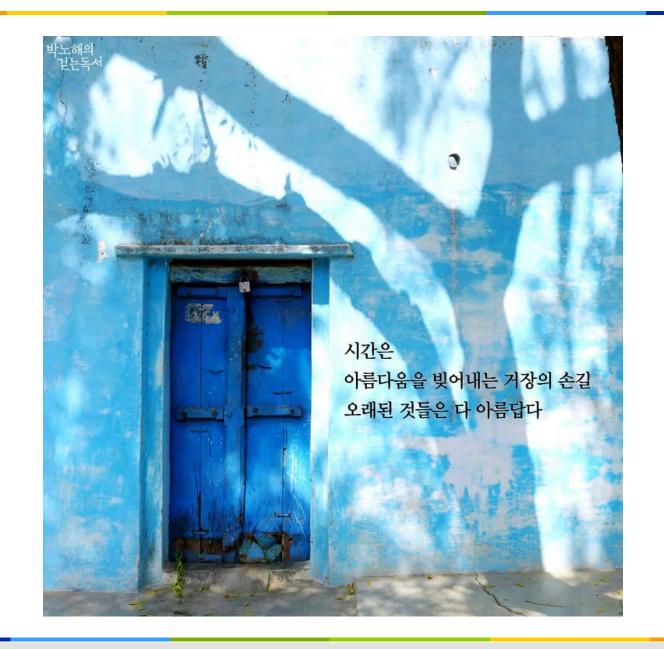


시작은 대학 만평기자였지만...





디스토피아의 삶을 벗어 던지고 유토피아를 꿈꾸며 선택한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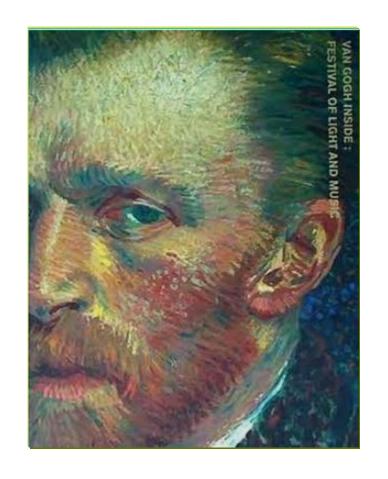
생계는 초등학교 방과후 미술강사로 유지



점점 이끌려 간 동심의 세계







아이의 질문에 숨겨진 창작의 갈증은 풀리고





어느 날 물감처럼 펼쳐진 제주 바다쓰레기





초등 1학년 딸아이의 받아쓰기 100점은





바다쓰레기-레(쓰레기) 바다(sea)+쓰기(using) 바다(sea)+쓰기(writing) 받아(receive)+쓰기(using) 받아(receive)+쓰기(writing)

장수 1인 기업 바다쓰기가 되는데





제주마켓을 돌며 대중들과 가까이하기 시작





뜻하지 않은 전시와 인터뷰 요청은 이어지고





공중파 방송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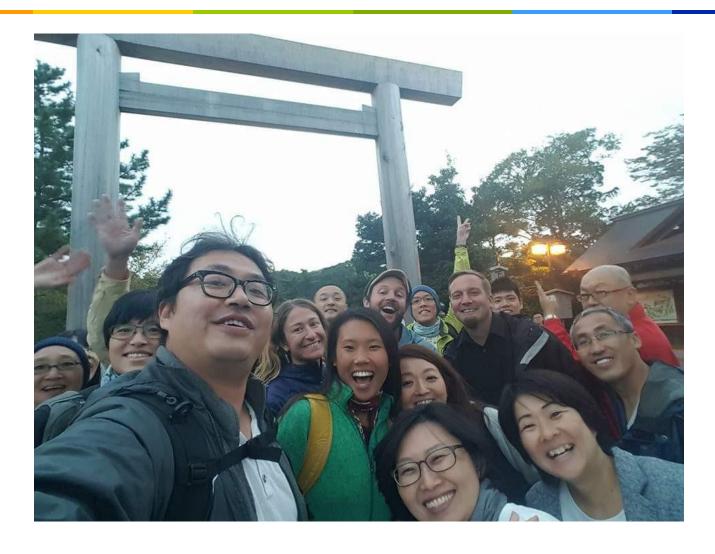
재미를 위해 시작한 체험은 정식수업으로 연결





행복을 꿈꾸던 길거리 예술가는





점차 환경예술가로 활동무대를 넓혀가는데





때마침 기후위기 시대와 맞물린 방향성





환경과 예술 그리고 교육이 갖는 시너지효과까지





재미를 경험한 아이들은 환경을 더 쉽게 이해하고







지구를 위한 환경놀이라는 선한 영향력도 경험





아이들에겐 쓰레기 줍는 과정도 재밌고 신나는 일







여기에 '환경+예술+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시도까지





자원순환은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일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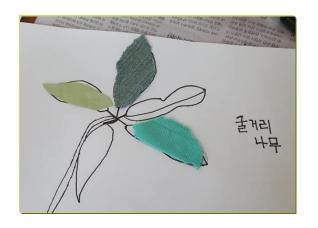




모든 쓰레기는 재미있게 노는 창작의 도구









그 어떤 재료라도 상상을 더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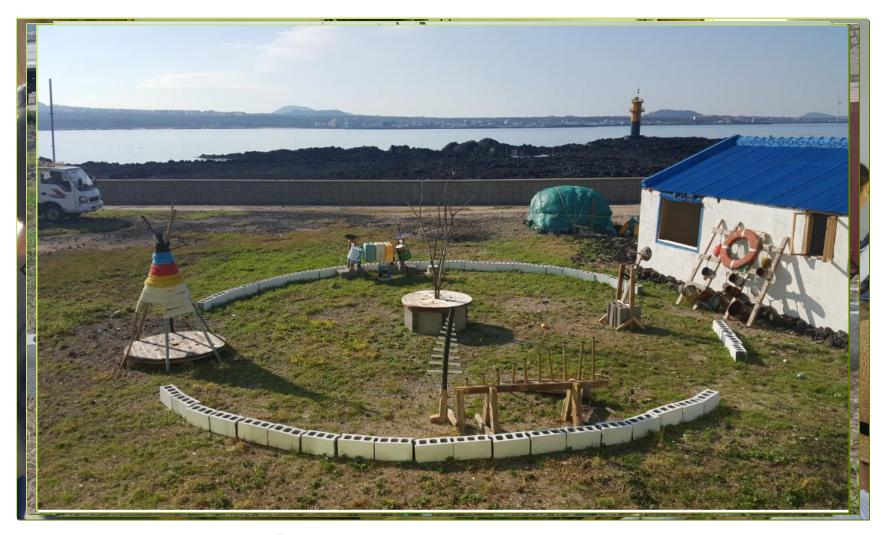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





바다쓰기의 상상은? 지금도 ing





섬을 찾아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도 하고





세계 환경예술가들과 교류도 하고





때론 그림책도 만들고











재미있게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때론 학교도 꿈꿉니다



얼마 전까지 감귤 가득 찼던 100평의 창고는





바다쓰기를 만나



새로운 상상을 시작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것들은





다시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부표는 조명이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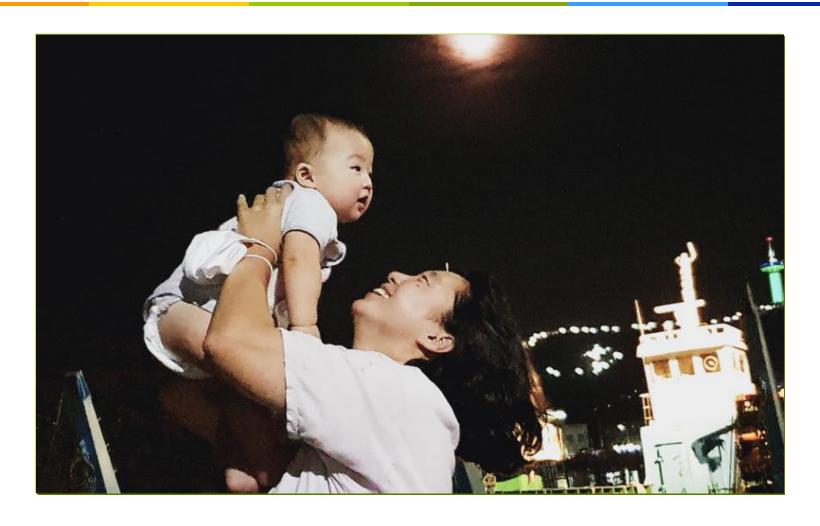


버려진 가구와 창문은 공간을 구성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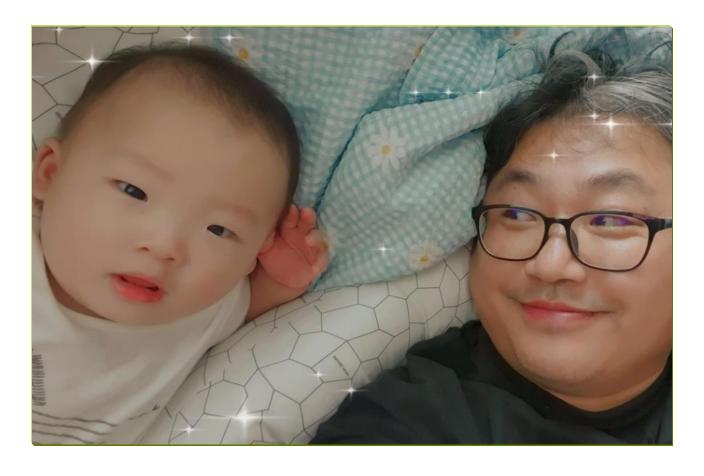
교육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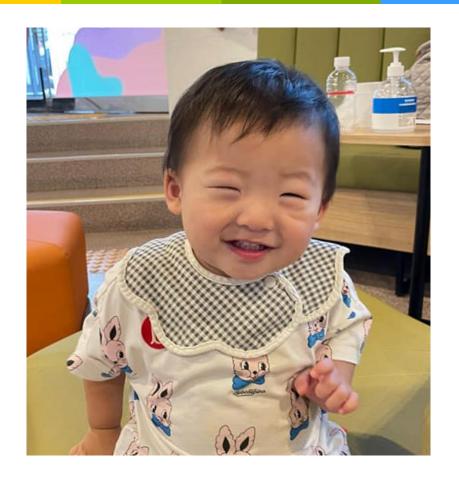


바다쓰기가 막둥이에게 주고싶은 선물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감사합니다.